

## 남자.

---

너흰 한순간 감정에 이끌려,  
욕구를 참지 못해서,  
술김에,  
여자가 이뻐보여서,  
심지어는 과시하려고.  
여자를 안지?  
잠을 자지?

그리고 그 여자가  
아는 여자든, 친구든,  
심지어는 처음 본 여자든.  
너흰 전혀 개의치 않지.  
단지 흔히 너희가 말하는  
`걸레`만 아니면 좋지?  
거기에 좀 이쁘장하다면,  
몸매가 좋다면  
너흰 아주 좋아죽지?

너흰 모른다

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도중

여자는 좋아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 
그와중에 기분이 어떠냐  
느낌 좋냐  
그런말  
함부로 하지마라.

여잔 그 순간을 참고있기도 힘들며  
너무나 아프고  
한편으론 치욕스럽기도 하고  
내내 무서워한다.

따뜻하게 속삭여줄 `사랑해`란 말을 원하지,  
`어때, 느낌좋아?` 이딴 말을 원하는게 아니란 말이다.  
너희와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으로 몸을 준단말이다.

한마디로 말하자면  
여자는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거다.

남자들아.  
눈감고 느끼기 전에  
눈을 떠 눕혀져 있는 여자의 표정을 보라.

너무 아프고 지친 표정으로  
울고있는건 아닌지,  
너무 힘든데 꼭 참고있는건 아닌지  
좀 보란말이다.

그 눈물과 아픔도 모르면서  
`사랑하니까.`라는 말로  
모든걸 덮으려 하지마라.  
너희 그 장난어린 핑계를  
여자는 고지곧대로 믿어버린다..

### 중략...

너흰 핑계로 사랑을 하지만,  
여자는 모든걸 잃어도  
사랑한다는 말로 핑계를 대신한다.

한동안 구독하지 못했던 리더를 살피던 중 Ssemi님 블로그에서 위와 같은 글(?)을 보았다.

정말 모든 여자가 그런거야? 누가 좀 알려주길 바라...